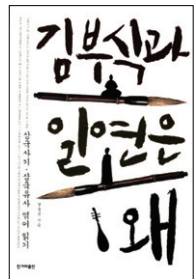


새로운 독법으로 읽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부식과 일연은 왜
정철한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1만3천원

두 개의 고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둘을 놓고 당대의 시대적 요구와 둘의 저자인 김부식과 일연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책이다.

삼국시대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창(窓),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현전하는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가 <삼국사기>이고, 우리 고대사를 가장 흥미롭게 담고 있는 최고(最高)가 삼국유사다. 하지만 그 둘이 그려낸 삼국의 역사는 판판이다. 같은 삼국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삼국을 기술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우조차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 두 고전을 대립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왔다. “<삼국사기>가 사대적인 반면 <삼국유사>는 자주적이다.” “<삼국사기>가 귀족적인 데 반해 <삼국유사>는 서민적이다.” “<삼국사기>는 유교적이고 <삼국유사>는 불교적이다.” 책은 이 외에도 둘의 대비되는 측면들과 그 이유들을 쫓고 있다. 이처럼 두 고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다를 수밖에 없는 편찬자의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고려 중기에, 하나는 고려 후기에, 하나는

유학자 김부식이, 하나는 승려 일연이. 삼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러나 참으로 상이한 두 개의 창을 비교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같은 삼국시대를 두고 김부식은 왜, 일연 스님은 왜 서로 다르게 서술했을까. 책은 고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실제로 역사서를 읽는 까닭은 절대불변의 객관적 진실을 확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변치 않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면, 역사서가 왜 시대마다 새롭게 쓰이겠는가? 오히려 역사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까닭을 깊이 음미해보는 과정 자체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김부식과 일연, 그리고 그들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음미하는 긴 여정을 떠나보자 한다.”며 고전을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책은 1부 ‘역사를 보는 두 개의 시선’에서 ‘근엄한 유학자 김부식의 시선’과 ‘탈속의 승려 일연의 시선’으로 두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부 ‘진실을 엿보는 일곱 개의 창’에서는 일곱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운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선별하여 두 기록을 함께 읽으면서 김부식과 일연의 시각차를 살펴본다.

일례로 우리 역사상 충신의 계보에 시원에 자리하고 있는 박제상에 대한 기록을 보면 김부식과 일연 스님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일본에 불모로 잡혀간 내물왕의 두 아우를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유학자가 쓴 <삼국사기> 스님이 쓴 <삼국유사> 같은 시대를 다르게 쓴 두 고전 비교

나섰던 제상이 왕의 두 아우를 구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끝내 일본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말이다. 김부식은 두 아우를 찾은 왕의 흥겨운 잔치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인을 지아비의 죽음을 지며보면서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는 애절한 여인으로 그렸다. 반면 일연 스님은 제상이 혹독한 고문을 겪으며 흘린 피

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지아비를 기다리던 부인은 신모(神母)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피날레를 묘사했다. 김부식은 제상을 충신의 전형으로 보고, 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제상의 처를 무연의 배역으로 묘사함으로써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반면 일연 스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려는 발상에서 제상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신이한 행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책은 두 고전이, 두 편찬자가 범한 오류를 지적한다. 자신의 신념에 맞게 서술하다보니 누락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책은 이와 같은 오류를 김부식과 일연 스님 모두 목격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유화, 소서노, 알영, 허황옥, 여자의 몸으로 지존의 자리에 오른 신라의 여왕들,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에 의해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설시녀와 호녀,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거나 자신의 몸 팔아야 했던 순순과 김유신의 처, 호녀 지은 등의 이야기를 통해 김부식과 일연 스님이 덧칠한 삼국의 모습을 살핀다. 저자는 책에서 역사의 기술은 편찬자의 시각, 즉 편찬자의 붓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김부식과 일연은 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삼국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두 고전을 통해 다양한 역사의 시선과 그 시선이 남긴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성냄과 탐욕도 쌓아두지 말고 알아차리면 사라져

사띠 진명스님의 알아차림

진명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3천5백원



“물속에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한다. 자신이 물속에 있음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물을 찾으려 아무리 노력한들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중생들은 무명의 삶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래야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선처에 태어난다” 여수 대마산 사띠 마을 수행 공동체 원장 진명스님은 우리네 삶을 이렇게 표현한다. 스님은 참나의 마음 알아차림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한다. 사띠 진명스님의 <알아차림>은 자신의 수행 경험과 불교적 사유를 담았다.

오랜 시간 대중들의 명상을 지도해온 스님은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고기와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고기와 같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현재도 흘러가버리는 물고기와 같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알아차릴 때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된다. 그래서 사띠 수행은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질 때만 현재라는 순간이 이어진다”

물론 이 책은 명상 전문 서적은 아니다. 스님의 생각과 사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함께 담았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전해주고자 한다. 부처님은 권력자나 비천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명 스님은 이에 대해 성냄과 탐욕의 일어남을 알아차려야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냄과 탐욕을 억눌러 쌓아두지 말고 단단히 ‘알아차림’ 하면 된다. 알아차리면 성냄과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성냄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한다”

스님은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지켜봐 왔다. 그래서 이 시대의 500만 우울증 환자들을 그리고 15만 명의 대학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퇴직자들을 위한 실버타운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위한 수련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한다.

또 이런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명상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명상법이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의 앞날은 희망이 없고 고통 속서 빠질 것이다” 스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불교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이 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8/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인	샘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민덕, 만현	현대정당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연	불광출판사
7	해탈정염론	김보배	운주사
8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9	머물지 마라 그 어떤 상처에	허허당	예담
10	백장록 강설	원오	비움과소통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사랑과 화해로 고뇌한 이청준 전집 시리즈 중 3권

꽃과 소리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 1만원



2008년 7월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이청준 전집> 시리즈 가운데 3권 <꽃과 소리>다. ‘변사와 연극’, ‘이상한 나팔수’, ‘소매치기울시’, ‘꽃과 뱀’, ‘꽃과 소리’, ‘가수(假睡)’, ‘마스코트’ 7편의 중단편을 묶었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눈길> 등 우리 시대의 한과 아픔을 사랑과 화해로 승화하려 한 평생 고뇌한 작가 이청준. 그는 소설가로서 투철한 작가의식, 지성인으로서 인격, 생활인으로서의 겸손함, 남을 위한 배려 정신과 자신에 대한 엄격성 등 삶의 여러 본보기들을 소리 없이 실천하며 우리 곁에 머물다 간, 한국 소설 문학사의 큰 표징이다. 이번 <꽃과 소리>에 실린 7편의 중단편은 1960년대 초기 이청준 소설의 문제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 있는 작품들로, 이번 작품집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김

영찬(계명대 국문과) 씨는 “이청준의 소설은 대부분 증상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구조를 띠며, 바로 그 의심과 호기심이야말로 이청준의 소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고 평했다.

#변사와 연극 - <여원> 1969년 3월호
<병신과 머저리>처럼 격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화자인 사내가 자서전을 연극대본으로 삼고 변사의 역할을 자임하며 무대에 연극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기 한과 아픔을 치유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한 나팔수 - <여성동아> 1969년 4월호
부대에 새로 온 나팔수가 부대 막사가 아닌 남쪽을 향해 취침나팔을 불어댄다. 그는 입대 전 서커스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사내다. 영문 모를 나팔 소리의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다만 해산을 앞둔 그의 여자를 향한 것이라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소매치기울시 - <사상계> 1969년 5·6월호
3부작을 이루는 단편으로, 보이지 않는 청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독백체의 소설이다
#꽃과 뱀 - <월간중앙> 1969년 6월호
진자와 가짜, 진실과 거짓의 대립 구도는 이청준

소설의 주요한 모티프로 변주되며 주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꽃과 소리 <세대> - 1969년 7월호
<꽃과 뱀>의 주요 인물이 겹치듯 등장한다. 이청준의 초등학교 시절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작품이다.

#가수 <월간문학> 1969년 8월호
<줄광대>, <병신과 머저리>, <꽃과 소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격자소설로, 분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 <한국전쟁문학전집> - 1969년 10월
소설 소재를 취하고 해석하는 복잡한 구성에 대한 일화인 이 단편은 ‘전쟁과 여인’이란 작품으로 개고 된다.

이청준은 지난 세기의 근대적 문학정신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표하는 작가다. 21세기에 이청준을 다시 읽는 까닭은 멀리 있지 않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학정신의 창조는 지난 세기와는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 속에서만 가능하다. 가고 없는 그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청준의 1960년대 작품 7편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박재원 기자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의 범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신국판 | 흑백 | 528쪽
2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선교회통(禪敎會通) 이룬 유일한 선어록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으로 언하대오를!

그동안 해능, 마조, 입제,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원오스님은 당신의 공부와 깨침을 바탕으로 변죽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살)을 주고 있다. 특히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無爲法)를 독자적으로 드러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원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 (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